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하반기 선교회장 교육이 오늘 일영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아동부 수련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예산 사석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28일부터 31일까지 화천 원천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부터 속회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개학은 9월 2일입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장마철에 만나는 웃는 얼굴은 햇빛만큼이나 반갑습니다.

식 당 봉 사 :	고숙이 최현옥 이준림 서정순 오송경 조관행 김필순
7/31,8/7식당봉사 :	유경순 이은옥 최경미 이수정b이은정 최재욱 김윤수
오늘설거지봉사 :	김기성 이정림 박권동 박범희
다음 주 설거지 :	이주현 김정우 김정행 조선환
새 교 우 :	민병배(2남) 문현미(5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9(통53). 하늘에 가득 찬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변함없는 동행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일 내리는 빗줄기에 여린 이파리가 녹아버리듯, 녹녹한 기운에 생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삶에는 늘 밝은 날만 있지 않음을, 어두운 날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면의 빛을 밝히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 사람들과 공감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공감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상처에만 골몰하지 말고 다른 이의 아픔을 살피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기쁨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사40:30,31 인도자
- ♣ 교 독 문 61. 시편142편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조병무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242(통233).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다함께
- ♣ 성경봉독 I. 막6:1-6 한대훈 선생
 II. 렘17:19-22 김윤정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지혜와 선입견 김재흥 목사
 II. 삶의 기본 세우기 김기석 목사
- 거둬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손성현 안경아 김준우 우순덕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종락
 박영신 김준호 곽혜자 김훈동 유경순 박창운 허정윤 배근수 김금순
 윤미경 윤수진 이재문 임주빈 최현옥 김보라 김정민 이해령 무명

월정헌금:

구명자 김승현 김수진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배부레 이봉옥 윤성중
 김윤정 이종자 김창경 전영자 조병주 조선환 차혜심 박윤숙 최재욱
 이수정 정현선 유선재 이현순 무명

감사헌금:

임승동 백혜숙 이유일 김미희 조병무 송양진 최종훈 김금하 허명선
 이건화 정선희 허신열 김용훈 김대규 박경애 박창운 허정윤 홍춘숙
 무명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양재성 임미심 조항범 오현정 한상의
 정영선 무명

생일감사헌금:

안정숙

	장혜숙	백혜숙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임정자	최경미	정복순	
	문영혜	이명희	곽혜자	
	안정숙	진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문복순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숨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정영선	이현숙	정영선	
	이영란	박미영	이영란	
	박혜경	조항미	강인숙	
	김재흥	오자영	교회	
	김기석	이건식	교회	

용서

최영철

월 새 없이 올라오는 풀 뽑다가
 풀들에게서 한 수 배운다
 제 올라오는 족족 대가리 분지르고
 뿌리까지 뽑는 나에게 품었을
 시퍼런 원한 같은 거
 까맣게 잊고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얼굴 내밀었으니
 작년에 핀 것 잊고
 옛그제 핀 것 잊고
 호미 들고 기다리는 내 앞에
 오늘 또 꽃까지 피워 올려
 빙그레 웃고만 있으니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 양	413(통470). 내 평생에 가는 길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을 든든히 하며 사십시오. 나의 생명, 너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시작점으로 삼고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삶의 기본을 저버리고 허황된 욕망에 이끌려 살아온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새롭게 세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눈빛, 말투, 마음 씀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법을 따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모임	이성운 전도사 기도 : 진정숙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주혜연 선생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조문규 권사

7월	영접위원	한상익 허호범 윤성종 최숙화 박성실 김윤정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겨울의 추위가 풀린 어느 날, 아내와 나는 모처럼 대청소를 하였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방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냈다. 방에 얽혀있는 거미줄을 걷어내는데, 깨알 같은 것들이 천장 구석에 몰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마귀 유충들이었다. 사마귀는 변태 과정이 없어 애벌레는 성충을 닮았다. 세모꼴 머리에 작은 가슴만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늦가을에 어미 사마귀가 방안에 들어와서 알을 슬어놓았는데, 봄이 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부화된 것 같다. 유충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천장 한구석에 가득하다.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옆방에서 놀던 순천이와 순민이가 달려왔다. 나는 아이들을 양팔로 안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곤충을 관찰하도록 도왔다. 아이들은 신기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좋아 하였다. 잠시 후에 비와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사마귀 덩어리를 쓸어내려 하니, 순천이와 순민이가 말했다. 아기 사마귀를 추운 날에 밖에 내다버리면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사마귀 새끼들을 애지중지 지켜보았다. 애벌레 때문에 우리 부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식사 중에 천장에서 유충들이 떨어질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얼굴이 스멀거렸다. 하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 가족은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사마귀 무리와 함께 살았다.

아내와 함께 춘계 심방을 하고 돌아오니, 어머니는 막내 순현이를 업고 아픈이네 집에 나들이하셨고, 순천이와 순민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마당 여기저기 쌀이 하얗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녀석은 신바람이 나서 얼굴이 상기되어 손에 바가지를 들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한 녀석은 쌀통에 물을 퍼다 붓고, 다른 녀석은 젖은 쌀을 퍼내어 마당에 뿌리고 있는 중이었다. 아내가 어이없이 서 있다가 따지듯이 물었다.

“왜 마당에 쌀을 흩어 놓았어?”

순민이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다.

“참새가 배가 고파서요.”

“그런데, 쌀통에는 왜 물을 부었어?”

순천이가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건요…… 쌀에 농약이 묻은 걸 그냥 주면 참새가 배가 아파요…….”

아이들은 참새의 배고픔을 생각하고, 농약 오염까지 마음을 쓴 것이다. 나는 회초리를 든 채 칭찬해야 할지, 나무라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나는 두 놈을 품에 안고 말했다.

“참새에게 쌀을 씻어 준 것은 잘했는데, 쌀통에 물을 부으면 쌀이 못쓰게 돼. 그리고 한꺼번에 모이를 많이 주면 참새들이 배탈 날 수 있단다. 이 다음엔 참새한테 한 줌만 주도록 해라.”

아이들을 타이르고 나서, 마당에 흩어진 쌀을 주워 담았다. 쌀을 씻고 일어서 방앗간에 가져가기로 했다. 심방을 마치는 대로 아내와 함께 쭉을 캐러 다녀야겠다. 참새 덕분에 내가 좋아하는 쭉떡을 실컷 먹게 되었다.

둘째 아들 순민이의 세 번째 생일이다. 성경학교와 연합성회 등 연이은 여름행사로 생일을 깜박 잊고 있었다. 설령 생일인 줄 알았다고 해도 생활비가 떨어져 달리 장을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형편 따라 생일상을 준비했다. 어머니는 텃밭에서 손수 가꾼 호박과 옥수수과 토마토를 따오셨다. 아내는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 대신하여 생밀가루로 빵을 찐다. 임시변통으로 생일상을 차리고, 상 한가운데 비상용 초를 세워 불을 붙였다. 나와 아내가 도화지로 왕관을 만들고 색종이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순천이는 종이로 접은 배를 동생에게 선물하였다. 왕관을 쓰고 목걸이를 거니 순민이는 의젓한 ‘어린 왕자’가 되었다. 주인공은 가족이 만든 선물을 받고 싱글벙글하였다. 우리 가족은 풍성한(?) 생일상에 둘러앉아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생일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순민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고마울 따름이다.

가난한 시골 교회의 풍경이다. 행복은 넉넉한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에도 기쁨이 있다.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